

**3월 28일 토요일 법회 식순**

< 1부 > 기도법회 (법요집 참조)

< 2부 > 불교대강좌

- 주 제 : 화 다스림 명상
- 법 사 : 마가스님(교법사)
- ♪오늘의 찬불가" 보현행원 법요집 p.53

**이달의 초청강좌**

날 짜	법 회 주 제	법 사
4. 4(토)	생활법문	법타스님 (정각원장)
4. 11(토)	자비수관	지운스님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센터)
4. 18(토)	춘계사찰순례	

● 정각원 불교대학 5기 모집 (접수중)

- 접 수 : 수시등록가능
- 대 상 : 불교입문과정 수료자
- 수 강 료 : 9만원(분기별)
- 이수과정 : 불교대강좌 → 교리반 I,II

●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 매주(토) 법회 후 1330~

구 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고금스님	법학관 B158
교리반	I 초기불교 초기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II 대승불교 대승불교문화	명선스님	
漢詩반	한시(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다정산방

**침단포교실 책상 보시(20개) 받습니다♥**

2인용 책상  
개당 10만원



**보시현황 : 원장스님 1개, 권복숙님 5개, 이준덕님 1개**

신도님들의 신행공간이 될 정각원 침단포교실에 2인용 책상 보시를 받습니다. 책상 상판에 보시자 성함을 새겨드릴 예정이니, 신도님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올미년 인등을 밝히세요~**

각자의 원을 담은 공덕행(功德行)!

- 인 등 : 1년 5만원 토요일 법회 시 축원 해드립니다.^^
- 신청문의: 정각원사무실 ☎ 2260-3017



**255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권선**

불기 2559년 봉축연등 신청을 받습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동국109 발전등 : 109만원 이상
- 동 국 인 재 등 : 50만원 이상
- 스 원 성 취 등 : 30만원 이상
- 가 족 행 복 등 : 10만원 이상
- 영 가 등 : 10만원 이상

☎ 정각원 사무실 2260-3017

**보시동참**

**3월 16일 불전 공양**

₩ 1,376,000원

법타스님, 마가스님, 동봉스님, 강승심, 고목훈, 권복숙, 권정순, 권혁채, 김기현, 김동연, 김성희, 남창강, 문정인, 박경자, 박성진, 배창근, 백창호, 변형하, 성창기, 안대준, 원서준, 이기형, 이봉자, 이성부, 이수자, 이수준, 이인주, 장은혜, 정도원 루, 정찬혜, 조경자, 천대적심, 최선자, 한영옥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1,569,000원

(법사비, 토요일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인등 보시**

김다연, 김동연, 김미연, 김중현, 김혜선, 박성태, 박승우, 박이지, 박장희, 박창남, 서국자, 신증자, 이섭주, 이소원, 이승주, 이용수, 조재희, 차강현, 최민준, 최원필, 하승보

**공양 보시**

- ❖ 대 중 공 양 : 최 선 자 님
- ❖ 불 단 과 일/떡 : 정각원 신도회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은 큰 복전을 짓는 것입니다. 동참 바랍니다.^^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불자님은

딱 한번만! 보시봉투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 장한 엘리트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9(2015)년 3월 28일

제285호(週刊)



어리석은 사람들과 벗하느니 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코끼리가 숲속에서 걸림 없이 살아가듯  
나쁜 짓을 저지르지 말고 홀로 살아가야 하리라.

[법구경]

## 불기 2559년 일산 캠퍼스 첫 교직원 정기법회 봉행



◎26일(목), 일산캠퍼스(바이오대, 약대, 의대) 교직원 정기법회 동국대 일산병원 법당에서 봉행. 병원 불자 직원모임 연우회와 함께 진행된 법회에서 원장스님께서서는 종립학교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불교 신행을 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일산캠퍼스 법회 및 신행활동 활성화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구불교협의회 우수 기부 표창수상



◎27일(금) 불교협의회(회장 원장스님)가 2015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적극 후원한 공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지난 겨울 이웃사랑 음악회에 보시후원해주신 불자님 모두의 공덕이십니다.

# 새봄맛이 사찰순례

봄기운 완연한 4월,  
꽃향기 가득한 사찰순례에 신도님 모두 함께 가요!

- 일 시 : 불기 2559. 4. 18(토) 08:00 ~
- 장 소 : 양평 용문사, 사나사
- 참가비 : 40,000원
- 대 상 : 정각원 신도(선착순 접수)

정각원 신도회 ☎ 010-9142-4282 (총무 일현)  
정각원 사무실 ☎ 2260-3017~9



# 화 다스림 명상

마가스님 (교법사)

“화를 참지 못하면 도를 그르쳐 공덕을 잃게 된다.  
계율을 지키거나 공행하는 것보다 인욕수행 공덕이 매우 뛰어나다.”  
<불교유경>

“공덕을 겁탈하는 도적은 진심이 가장 심하다.  
이 진심(화내는 마음)은 보리(菩提 깨달음)를 이루지 못하는 장애를 일으킨다.”  
<자비도량참법>

“비구들이여, 수행의 4과(수다원, 사다남, 아나함, 아라한) 중 세 번째인 아나함과에 오르면,  
마음 속에 진심(嗔心)이 완전히 소멸되어 화를 내지 않는다. 바로 사리불이 그러하다.”  
<거해, 빨리 『법구경』, 계송 #389~390, 고려원출판사>

##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첫째, 경전을 독송함으로써 진리는 늘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일념진심기(一念嗔心起) 백만장문개(百萬障門開)”

<화엄경>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즉 한번 화를 내면, 모든 일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겁니다.

한번 화를 내면, 계속 다른 일까지 엉망진창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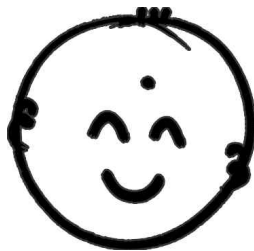
그래서 베트남의 틱낫한 스님은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 화살을 맞지마라”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처음에 일어난 분노가 첫 번째 화살이요,  
그 분노로 인해 자신의 심신에 상처를 남기는 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한편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폭언을 함으로서 또 다른 고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도 분노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둘째,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자신의 분노',  
즉 감정을 순간적으로 자각하고, 숫자를 세어보는 겁니다.  
불교의 수식관(수를 세는 명상)이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하나, 둘, 셋 이렇게 열까지 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몹시 화가 났구나'라고 자각만 해도  
분노를 조금이나마 자제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 화가 나 있는 자신의 현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연민히 여기는 것입니다.  
굳이 '상대방을 용서해야지'라고 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매우 힘들구나'라고 아기를 돌보듯이  
자신을 연민히 여기고 자애심을 갖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실은 세 번째 방법이 화를 다스리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보시지만, 보시보다 인욕이 더 큰 복이다.  
인욕하면서 자비를 베풀면 근심이 사라진다.  
인욕은 편안한 집, 재앙과 유혹에 깃들지 않고  
인욕은 커다란 배, 험난한 바다를 헤쳐 나갈 수 있으며,  
인욕은 좋은 약과 같아서 중생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나운인욕경』, 한글대장경 159책